

Thursday, February 17, 2011



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 '아타 김' 전시회 관람

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(회장 로버트 털리) 회원 40여명은 16일 마틴 브라운 박물관 큐레이터의 안내로 루빈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'아타 김 전시회'를 관람했다. 이번 전시회는 아타 김 사진작가를 포함한 4명의 현대 작가들이 불교적 세계에서 얻은 영감을 표현한 사진, 그림 등을 전시하고 있다. 회원들은 불교의 기원지인 히말라야의 예술작품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.

〈사진제공=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〉